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음 6월 24일) 제16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복숭아로 만든 화채입니다" 전주시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의 참맛을 볼 수 있는 '전주명품 복숭아 큰잔치 행사'가 26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복숭아 화채를 나눠주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 정부 지원 확정

도, 새만금 유치에 추진력 확보…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 바탕 유치활동 나서

전북도의 '2023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이 정부 지원으로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가차원에서 유치하기로 심의·결정해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는 전·현직 대통령이 유치활동에 직접 나선 상황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2023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새만금 유치에 한발 더 다가간 셈이다.

2023세계잼버리는 당초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책성 분석에서 새만금의 미래성과 발전성에 높은 평가가 이뤄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견해차이가 많은 정책성 평가에 있어서 국회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한국스카우트 의원연맹 의장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세계 5만 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세계잼버리'를 유치할 경우 약 8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비롯해 상당한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나가있는 재외공관 협조가 필요한 외교부와 비자발급 관련 법무부 등 중앙부처의 협조를 바탕으로 유치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쟁 상대국인 폴란드가 소속된 유럽연맹에는 40개국,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에는 2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어 숫자로는 불리하다고 판단, 아프리카와 남미를 타겟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송하진 지사는 아프리카 스카우트행사에 참석해 약 30개국의 대표단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적지인 유럽연맹 총회에 참석해 폴란드 대표단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형규 정무부지사도 남미 5개국을 순방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이 정부지원 심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로서는 든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3 세계잼버리'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새만금 홍보 및 인프라 개발 효과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만큼 유치 성공을 위해 더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잼버리는 올림픽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로, '2023 세계잼버리' 개최국 선정은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국 회원국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고민형 기자

더민주 지역위원장 선출

전주을 이상직·김제부안 김춘진

이상직 위원장

김춘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이상직 전 의원,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에 김춘진 전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더민주 도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전주시 전주비전대 미래관에서 진행한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을 신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5,051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69명(37%)이 투표에 참여한 경선에서 총 982표(52.54%)를 획득해, 884표(47.29%)를 얻은 최형재 후보를 제쳤다.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과 부안예술회관 등에서 치러진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김춘진 전 의원이 1,892표(65.5%)를 얻어 987표(34.1%)를 얻은 최규성 전 의원을 제치고 지역위원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날 김제부안 경선에서 선거인단 4,959명 중 58%인 2,88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폭염경보' 발령 5일째

전주시, 안전대책 수위 강화

경로당·무더위 쉼터 등 현장점검 나서
도로변 물뿌리기·보행지역 얼음 배치

전주시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안전대책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5일째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로당을 비롯한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우선,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공간인 경로당 372곳과 주민센터 32곳, 복지회관 8곳 등 총 419곳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도우미가 수시로 방문해 폭염에 따른 행동요령 설명 후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또, 방문건강관리 요원과 노인돌보미들이 독거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건강상태를 점검·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팔달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 안덕원로, 송천로, 태조로, 은행로, 서원로 등 주요노선에 대해 살수차를 이용한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한옥마을 등 보행자가 많은 22곳에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얼음을 배치했다.

시는 또 농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비롯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예방대책 등을 알렸다.

가스와 주유시설 등 폭염으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부터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안전담당관, 노인복지부서, 보건소,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2면 전주시, 임금근로자 비중 가장 높아